[동향보고]

일본 경제 동향_2017년 4월

(아베노믹스 경기, 최장경기회복 지속 가능성)

< 목 차 >

Ⅰ. 일본 경제 지표 ····· 1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2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2
2.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 6
3. 엔저세 약화·주가상승·금리하락 ·····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반전 ····· 10

Ⅲ. 일본의 주요 정책 ····· 12

1. 아베노믹스 경기, 최장경기회복 지속 가능성 ····· 12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5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증가 ····· 15
2. 일본인 직접투자 2분기 연속 증가 ····· 17

Ⅴ. 참고 자료 ·····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 19
2. 주요 경제 일정 ····· 21

Ⅰ.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6					2017		
				1/4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5.6	115.1	115.5	-
GDP증가율(연율,%)		1.2	1.0p)	1.9	2.2	1.2	1.2p)	-	-	-	-
국내투자(조엔)	민간설비투자	70.1	75.9p)	19.9	15.8	19.9	20.5p)	-	-	-	-
	공공투자	23.4	24.3p)	6.6	4.3	6.1	7.2p)	-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19.6	12.7	18.6	17.1	6.9	5.7	6.9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3	△0.3	△0.1	0.0	0.2	0.0	△0.2	0.0	-
	전년동기비	0.5	△0.3	△0.1	△0.4	△0.5	△0.3	△0.2	0.1	0.2	-
실업률(%)		3.4	3.4	3.2	3.2	3.0	3.1	3.1	3.0	2.8	-
수출(조엔)		75.6	70.0	17.5	17.0	17.0	18.6	6.7	5.4	6.4	7.2
수입(조엔)		78.5	66.0	17.2	15.5	16.0	17.2	6.0	6.5	5.5	6.6
무역수지(조엔)		△2.9	4.1	0.3	1.5	1.0	1.4	0.6	-1.1	0.9	0.6
경상수지(조엔)		16.4	20.6	5.9	4.6	5.7	4.2	1.1	0.07	2.8	-
환율	달러	121.1	108.8	115.3	108.1	102.4	109.4	116.0	114.7	113.1	113.0
	원화(100엔)	935	1,068	1,043	1,076	1,095	1,059	1,019	1,030	1,013	1,047
금리(10년물,%)		0.36	△0.051	0.051	△0.121	△0.128	△0.007	0.054	0.062	0.085	0.069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6,843	16,393	16,500	17,951	19,066	19,194	19,189	19,340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17.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5.5로 전월비 0.4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보합

○ '17.2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6,147억 엔 흑자

○ '17.3월 수출은 7조 2,291억 엔, 수입은 6조 6,144억 엔

□ **(환율)** 엔저세 약화

○ '17.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3 엔으로 전월비 0.1% 엔고

* '17.3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47원으로 전월비 3.4% 엔고·원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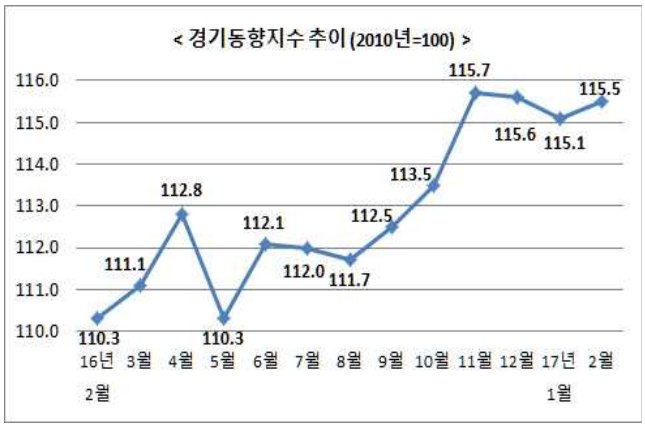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전월과 같이 일부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

- 고용·소득의 견조로 개인소비는 전체적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설비투자와 생산, 수출도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과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는 115.5로 전월보다 0.4p 상승, 전월에 이어 내각부는 기조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

□ (전 망)

○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과 공공투자의 증가, 견조한 개인소비 등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

- 일본 내각부는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2016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의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4.4로 전월보다 0.5p 하락

<GDP>

○ 일본 내각부가 3월8일 발표한 2016년 4분기(10-12월) 실질 GDP성장률(개정치 : 2차 속보치)은 전기비 0.3%, 연율환산으로는 1.2%로 1차 속보치보다 소폭 상향 수정됨

○ 최신 통계의 반영결과,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이 2.0% 증가로 1차 속보치 0.9% 증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 상향조정의 요인

○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으로, 수출이 전기비 2.6% 증가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함

○ GDP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04% 증가로 1차속보치 0.01% 감소에서 약간 상향 수정되었으며, 음식업과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

○ 공공투자는 2.5% 감소로 1차속보치의 1.8% 감소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경제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2016년 실질 GDP성장률은 1차속보치와 같이 1.0%로 5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

○ 일본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2017년 1분기에는 1%대 전반의 성장이 지속되다가, 2017년도 후반에 걸쳐 1%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2018년에도 해외 경기의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1%대 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 0.8%를 상회하는 1%대 성장시나리오의 실현여부는 설비투자가 포인트인데, 28조엔의 경기대책의 효과와 함께 해외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의 설비투자가 증세를 보일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5	2016	2015				2016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2	1.0p)	1.3	△0.0	0.2	▵0.2	0.5	0.5	0.3	0.3p)
전기비연율			**5.3**	**△0.0**	**0.6**	**▵1.0**	**1.9**	**2.2**	**1.2**	**1.2p)**
전년동기비			△0.1	1.8	2.1	1.1	0.4	0.9	1.1	1.6p)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 '16.4분기 국내투자, GDP의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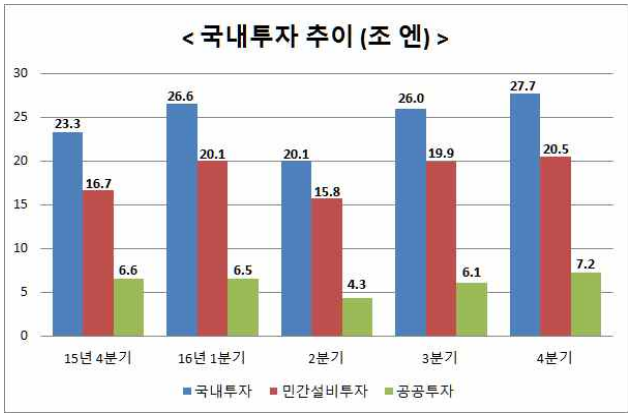
○ '16.4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6.1% 증가한 27.7조 엔으로 GDP의 19.7%

□ (민간설비투자)

○ '16.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3.0% 증가한 **20.5조 엔**, 국내투자의 74.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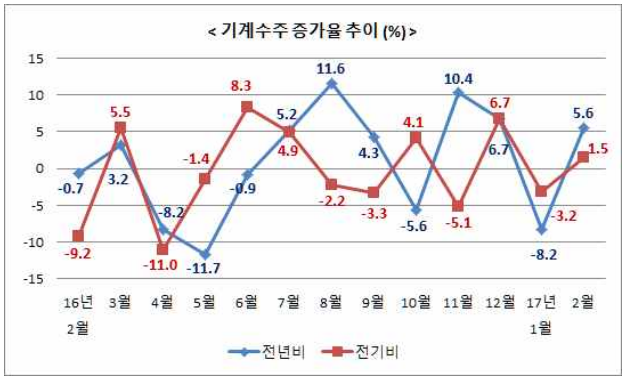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3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2월 기계수주도 전월비 1.5% 증가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 마인드의 개선과 함께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는 증가할 전망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공공투자)

○ '16.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6.1% 증가한 **7.2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6.%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

- '17.2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13.7% 증가

- '17.3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0.6% 증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계속 나타날 전망

<소비자물가>

□ '17.2월 소비자물가 보합

○ '16.2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99.6(2015년= 100)으로 전월비 0.0%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2% 상승,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물가상승목표 2%에 일보 전진
- 생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1% 상승

○ 앞으로 소비자물가(생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당분간은 횡보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보임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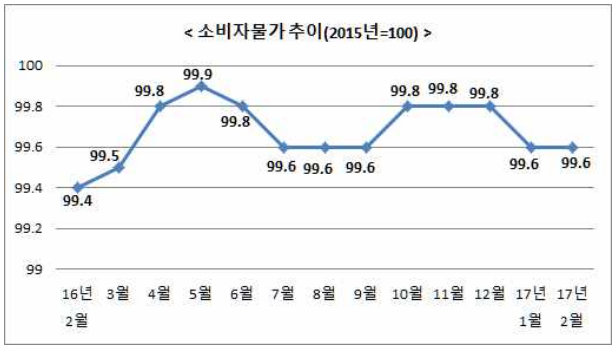
○ '17.2월 완전실업률은 2.8%로 22년 8개월 만에 낮은 수준

- 완전실업자수 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와 피고용자수도 감소
- 남성노동자의 실업률은 3%로 전월보다 0.1% 개선된 반면, 여성노동자의 실업률은 2.7%로 전월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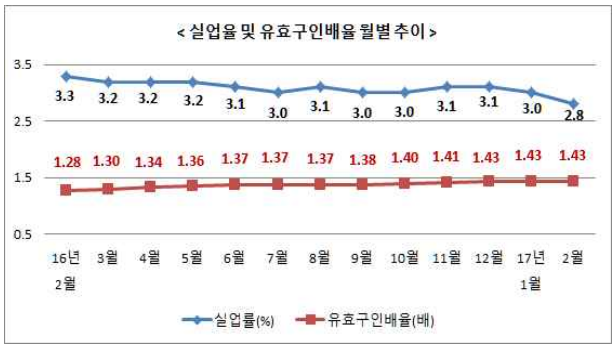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동일

- '17.2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43배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핍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 더하여 제조업에서도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종 합)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

○ '17.3월 무역수지는 6,147억 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축소

-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상회한데 따른 것임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전월의 1,118억 엔 흑자에서 3,198억 엔 적자로 반전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113 엔에서 6,281억 엔으로 확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284억 엔에서 2,988억 엔으로 확대

< 2017년 3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4	11.3	18.5	**7.2**	12.0	**12.5**	19.0	8.0
수 입	5.5	1.2	-15.4	**6.6**	15.8	**20.0**	18.6	8.1
수 지	0.9	245.5	-	**0.6**	-17.5	**-33.4**	0.4	100.0

자료 : 재무성

□ (수 출) '17.3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7.3월 수출은 전월대비 12.5% 증가한 7조 2,291억 엔

- 전월의 18.5% 증가에 비하면 수출증가폭은 감소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12.4% 증가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

- 철강의 수출증가폭이 13.4%로 가장 크며, 이어 자동차부품, 원동기, 자동차 등도 10% 이상의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임

< 2017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445	0.5	16.5	**10,402**	1.3	**10.1**	27,952	-1.4
2	자동차부품	3,221	21.8	23.9	**3,625**	21.2	**12.5**	9,446	18.9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129	16.8	7.0	**3,321**	7.6	**6.1**	9,373	9.0
4	철강	2,685	11.4	7.5	**3,046**	15.6	**13.4**	8,229	11.9
5	원동기	2,370	14.9	36.0	**2,616**	13.5	**10.4**	6,729	10.2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

-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19.5%로 가장 큼

< 2017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2,232	0.4	16.1	**13,531**	3.5	**10.6**	36,303	-0.9
2	중국	11,966	28.2	34.9	**12,995**	16.4	**8.6**	33,832	16.3
3	ASEAN	9,301	10.5	9.3	**10,706**	15.1	**15.1**	28,515	12.0
4	EU	7,006	3.3	17.5	**8,009**	1.4	**14.3**	20,980	-0.1
5	한국	4,739	17.4	6.6	**5,665**	29.0	**19.5**	14,851	21.1
6	대만	3,920	28.6	21.2	**4,060**	12.0	**3.6**	11,215	12.0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7.3월 수입 금액, 물량 모두 증가**

○ '17.3월 수입은 전월비 20.0% 증가한 6조 6,144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21.0%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의약품 대신에 의류 및 동 부속품이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

-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증가폭이 45.7%로 가장 큼

< 2017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6,428	69.9	0.8	**6,830**	45.7	**6.3**	19,634	49.1
2	액화천연가스	3,592	1.6	-3.8	**3,679**	6.5	**2.4**	11,003	5.0
3	의류 및 동부속품	1,935	-26.9	-35.7	**2,820**	5.3	**45.7**	7,428	-7.1
4	석탄	2,030	52.0	-12.3	**2,418**	75.8	**19.1**	6,762	59.9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001	-1.3	-15.6	**2,334**	5.9	**16.6**	6,706	1.4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전월비 49.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9.0% 증가**

< 2017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2월			2017.3월			2017.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0,848	-17.7	-39.6	**16,193**	10.3	**49.3**	45,005	0.9
2	ASEAN	8,814	-1.5	-9.2	**9,882**	9.6	**12.1**	28,407	5.2
3	EU	6,594	-7.5	-4.6	**7,325**	7.1	**11.1**	20,832	-1.7
4	미국	6,119	-0.7	-6.5	**7,250**	16.3	**18.5**	19,916	9.1
5	호주	3,501	25.6	-2.6	**3,703**	34.0	**5.8**	10,798	27.0
7	한국	2,455	9.6	-9.7	**2,677**	17.4	**9.0**	7,851	15.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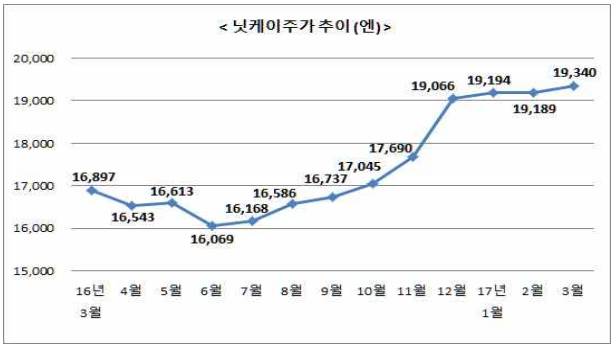
3.엔저세 약화 · 주가상승 · 금리하락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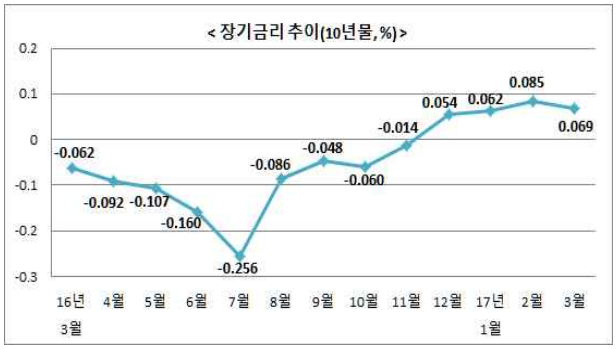
○ ‘17.3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8% 상승한 19,340엔

□ (금 리)

○ ‘17.3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18.8% 하락한 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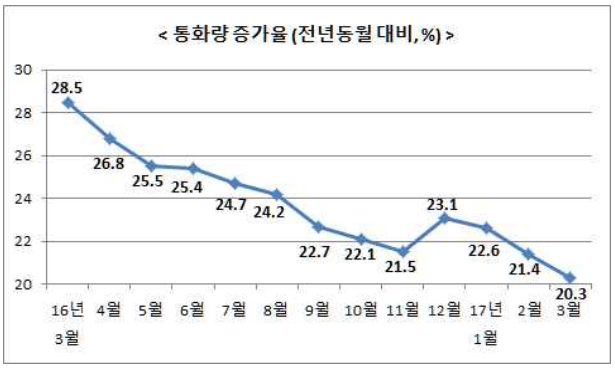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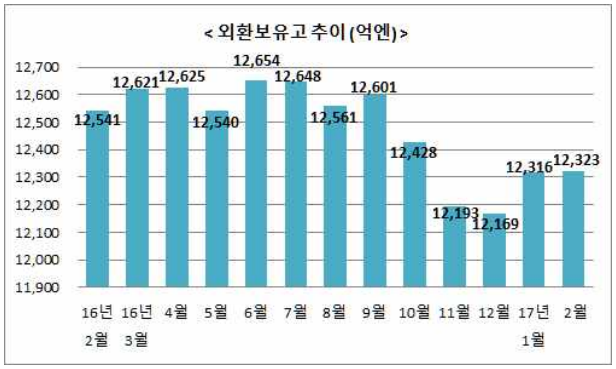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7.3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0.3%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재무성

□ **(환 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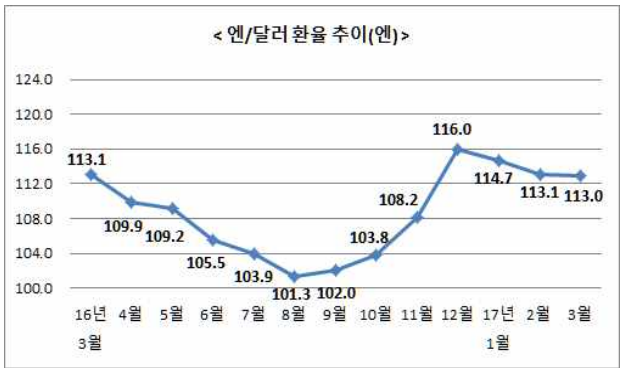
○ ‘17.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1% 하락한 113엔(엔고)

- ‘17.4월 들어서는 108엔대까지 엔저세가 약화, 4월 19일 현재 108.6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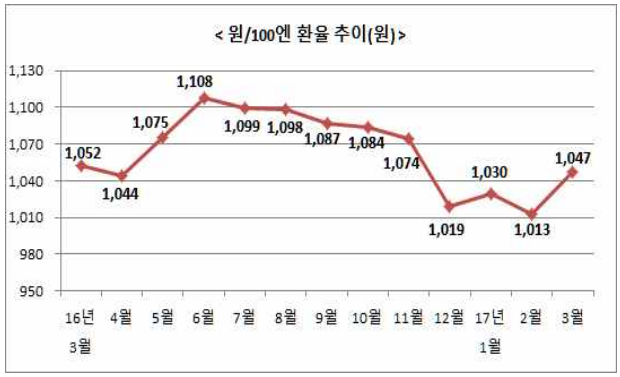
○ 최근 엔저세 약화·엔고반전은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에 따라 미일금리차 축소에 의한 것임

- 앞으로도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경계가 엔저세 약화·엔고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

○ ‘17.3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u>100엔당 1,047원으로 전월의 1,013원에 비하여 3.4% 엔고·원저</u>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반전

□ 최대 투자지역인 미국과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

○ ‘17년 2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8,934억 엔으로 전월비 20.2%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1-2월
금 액		681,657	196,248	127,675	186,332	171,402	57,437	68,934	126,281
증가율	전기비	-2.1	-9.8	-35.0	45.9	-8.0	-17.0	20.2	-
	전년동기비	-2.1	26.7	-13.7	5.8	-21.2	-3.8	10.8	2.8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대양주와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

- 미국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91.7%로 중동지역 다음으로 큼

-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는 5.0%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324억 엔으로 29.6%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6		2016		2017				
	금액	증가율*	4분기		1월		2월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81,657	-1.7	171,402	-8.0	57,437	-17.0	68,934	20.2	126,281
아시아	80,321	-43.3	20,555	18.8	5,955	-12.7	5,977	0.4	11,932
중 국	13,076	-10.8	3,567	19.7	1,055	-13.1	1,119	6.1	2,174
한 국	3,461	-26.6	912	25.1	250	-4.6	324	29.6	574
북 미	181,747	-23.4	38,586	22.8	11,004	-28.5	20,883	89.8	31,887
미 국	176,406	-23.4	37,109	22.1	10,722	-28.3	20,549	91.7	31,271
중남미	36,110	58.7	9,125	-54.6	1,993	-72.5	2,005	0.6	3,998
유 럽	366,263	35.8	95,998	-15.6	37,115	0.3	38,985	5.0	76,100
대양주	12,925	-32.4	5,049	189.7	923	-52.7	708	-23.3	1,631
중동	1,581	-12.4	172	26.5	24	-47.8	64	166.7	88
아프리카	7,297	6.6	1,919	-0.6	423	-44.8	312	-26.2	735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아베노믹스 경기, 최장경기회복 지속 가능성

□ 5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아베노믹스 경기」

○ 4월 6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에 시작된 아베노믹스 경기가 1990년 전후의 버블경제기를 제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3번째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제 2차 아베내각이 발족한 2012년 12월에 시작한 경기회복은 2017년 3월까지 52개월째임

- 1986년 12월-1991년 2월의 51개월간이었던 버블경제기를 제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3번째임
- 금년 9월까지 회복이 지속되면 1965년 11월-1970년 7월의 57개월간의 「이자나기」 경기도 제치게 됨
- **일본의 최장기 경기 확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내각 때인 2002년 2월부터** 73개월간 이뤄졌음 [출처: 중앙일보] 아베노믹스 경기회복 52개월째…전후 세 번째로 길어
-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이후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부진했음. 그러나 경기회복 기간을 판단하는 일본 내각부의 한 연구회멤버는 경기부진의 깊이나 길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후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평가

□ 엔저와 공공사업에 힘입은 경기회복

○ 아베노믹스 경기는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에 보조를 맞추어, 엔저에 의한 기업수익의 증가와 공공사업 등이 경기를 떠받치고 있음

○ 특히 아베노믹스 경기를 상징하는 것이 공공투자임

- 공공투자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예산과 잇단 경제대책으로 회복기간 중 10%정도 증가했음. 코이즈미 정권의 예산삭감으로 공공투자가 2002년에 30% 감소했던 때와는 대조적임

○ 미국이 2009년 7월부터 장기간의 회복국면에 있어 해외경기도 비교적 안정되고 있는 점이 일본의 경기회복을 지탱해주고 있음

- 다만 과거의 회복국면과 비교하면 내수, 외수 모두 증가세가 약한 것이 특징임. 또 고용환경은 양호하지만 임금상승률이 제약을 받고 있어 회복을 실감하기에는 역부족

○ 경기회복 기간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경기동향지수인데, 일본 내각부가 4월 7일 공표한 2017년 2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비 0.4p 상승하여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다고 하는 기조판단에 기여

-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3월의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음

○ 현재 경기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차로 하여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 기업실적도 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쇼크 등이 없다면 2018년까지는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완만하고 저온적인 경기회복

○ 이제까지의 경기회복은 완만하고 저온적이었다는 것이 특징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회복기였던 2002년에 수출이 80% 증가했으나 이번에는 20% 증가, 설비투자도 10% 증가로 최장기 회복기의 절반 수준임. 임금상승률은 부족하고 개인소비는 횡보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 그 배경에는 중기적인 경제성장의 실력인 잠재성장률의 저하도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 일본 내각부의 추계로 2016년은 잠재성장률이 0.8%에 불과.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증가하지 않은데다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에 신중하기 때문에 경기회복력이 약하다고 닛케이 신문은 평가

□ 경기회복 앞으로 2년 더 지속, 2019년에 경기피크 가능성

○ 2012년 12월에 시작하여 길고 완만한 경기회복을 지속했던 아베노믹스 경기

○ 일본의 민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0년 동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초장기의 경기회복을 예측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음

○ 이번의 경기회복은 엔저하에서도 수출증가율이 낮은 것이 특징임. 과거에는 엔저가 진행되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국내생산·수출을 늘려왔음

○ 그러나 이번에는 일손부족으로 생각처럼 국내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수출도 늘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당초는 리먼쇼크로 장래에 대하여 비관적이었던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보류했으나 최근에는 일손부족이 성장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

○ 미즈호증권의 우에노야스나리(上野泰也)씨에 의하면, 앞으로는 올림픽 특수를 맞는 2019년 중에 경기의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임

- 2019년 10월에 예정된 세율 10%의 소비세인상을 실시하면 2019년 경기피크설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임. 앞으로 2년 정도는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증가

□ (종 합)

○ ‘17.3월 대일무역적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한 2,733백만 달러

- 대일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일수입도 그 이상으로 크게 증가

○ ‘17.3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7%에서 4.9%로 상승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2.4%에서 12.1%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2%에서 8.3%로 상승

< 2017년 3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45	20.6	-4.3	2,413	17.7	18.0	6,595	19.1
대일 수입	4,465	31.0	19.0	5,146	22.4	15.3	13,364	24.9
무역 수지	-2,420	41.4	50.0	-2,733	26.9	12.9	-6,769	31.2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7. 3월 대일 수출은 2,413백만 달러로 전월비 18.0%의 큰 폭 증가

- 이는 동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일수출 경쟁력의 강화를 시사

	대일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2월	20.6	-4.3	20.2	7.2	11.3	18.5
2017.3월	17.7	18.0	13.6	13.1	12.0	12.5
2017.1-3월	19.1	-	14.9	-	19.0	-

○ 전월과 비교하여, 금속광물 대신에 전기기기가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증가

- 수송기계의 대일수출 증가폭이 100.0%로 가장 큼

< 2017년 3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045	20.6	-4.3	**2,413**	17.7	**18.0**	6,595	19.1
1	철강제품	302	30.8	-1.0	**323**	23.9	**7.0**	931	30.3
2	광물성연료	222	79.0	-26.7	**243**	112.4	**9.5**	771	80.4
3	수송기계	109	16.5	-15.5	**218**	82.4	**100.0**	456	29.6
4	석유화학제품	124	39.2	3.3	**155**	75.8	**25.0**	399	56.8
5	전자부품	135	3.5	-5.6	**143**	-12.1	**5.9**	421	-3.4
6	산업용전자제품	131	43.1	26.0	**139**	24.4	**6.1**	374	23.9
7	정밀화학제품	110	16.0	-4.3	**124**	7.1	**12.7**	349	14.9
8	농산물	80	11.9	1.3	**95**	13.1	**18.8**	254	18.2
9	기계요소공구·금형	88	2.1	7.3	**94**	-6.2	**6.8**	264	-2.1
10	전기기기	62	51.4		**85**	-53.3	**37.1**	208	-2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7.3월 대일수입은 5,146백만 달러로 전월비 15.3%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57.8%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2월	31.0	**19.0**	23.9	**-3.6**
2017.3월	22.4	**15.3**	27.7	**57.8**
2017.1-3월	24.9	-	23.9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증가

- 기초산업기계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32.8%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기계가 32.3%, 전자부품도 26.7%의 비교적 큰 대일수입 증가폭을 보임

< 2017년 3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7.2월			2017.3월			2017.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4,465	31.0	19.0	**5,146**	22.4	**15.3**	13,364	24.9
1	정밀기계	628	215.8	36.8	**831**	192.3	**32.3**	1,919	199.0
2	전자부품	483	18.7	-4.0	**612**	-0.2	**26.7**	1,598	11.4
3	철강제품	501	30.3	10.8	**547**	25.3	**9.2**	1,500	25.1
4	석유화학제품	407	39.2	19.0	**471**	40.0	**15.7**	1,224	34.3
5	정밀화학제품	367	17.6	27.9	**352**	1.7	**-4.1**	1,006	7.9
6	기초산업기계	250	1.8	17.9	**332**	16.4	**32.8**	795	8.3
7	산업용전자제품	241	-3.5	28.2	**285**	-0.1	**18.3**	715	1.0
8	산업기계	183	3.4	52.5	**212**	6.6	**15.8**	515	2.0
9	수송기계	198	12.6	3.7	**208**	-10.9	**5.1**	598	0.0
10	플라스틱제품	187	12.6	6.9	**197**	9.4	**5.3**	559	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2분기 연속 증가

□ **(동 향)** '17.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

○ '17.1분기 일본의 <u>對韓 직접투자는 407백만 달러로 전기비 13.4% 증가</u>

- 증가폭은 전기의 85.1%에 크게 못 미침

- 건수로는 전기비 24.2%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8.4%의 큰 폭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5		2016		2016.3분기		2016.4분기		2017.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65 (-20.7)	194 (-63.5)	91 (40.0)	359 (85.1)	69 (-24.2)	407 (13.4)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716 (-5.8)	4,495 (-28.4)	844 (17.9)	6,250 (39.0)	632 (-25.1)	3,851 (-38.4)

주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4월 13일 오사카 소재기업 케이엔씨㈜와 한국 ㈜제이켐이 합작으로 광양경제자유구역인 세풍산단내 외국인전용단지 입주를 위하여 500만 불의 투자협약 체결(2017.4.15. 뉴스메이커)

○ 일본의 전통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오쿠마 코퍼레이션사가 인천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2017.3.9. 국민일보)

○ 일본의 최대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아이리스 오야마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생활용품 제조 및 연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에 착공하여 201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2017.3.8. 헤럴드경제)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유인 감소와 유턴 사례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유치 전략이 필요

Ⅴ.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7.3월~2017.4월)

□ 국내 기관

○ 『저성장 시대 일본기업의 성장전략 분석과 시사점』 KOTRA, 2017년 4월12일
http://news.kotra.or.kr/ezpdfwebviewe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site/kotranews/upload/reports/20170412135107_1491972667419.pdf

○ 『[일본경제포럼] 현장에서 지켜본 한일경제 30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4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26&no=43926

○ 『[일본경제포럼] 한일외교 관계 개선될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4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26&no=43925

○ 『[일본경제포럼] 일자리 일본 기업에 길이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4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25&no=43924

○ 『[일본경제포럼]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것인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4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24&no=43923

○ 『일본 3대 메가뱅크의 북미지역 사업확대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4월1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1429&searchtext=&volumeid=4437&searchindex=0

○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3월24일

○ 『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3월14일
http://tri.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2&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625

□ 일본 기관

○ 『일본무역의 현상 2017』 일본무역회, 2017년 4월15일
http://www.jftc.or.jp/research/index.html

○ 『크로스보더 수직통합과 기업내무역: 한일기업의 사례』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4월14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7e049.html

○ 『미일통상전략에 사각지대는 없는가 : 미일경제대화의 함정』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7년 4월12일
http://www.iti.or.jp/flash333.htm

○ 『미중경제마찰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미즈호종합연구소, 2017년 4월7일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jp170406.pdf

○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결정 : 일본 외자계기업의 사례』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4월5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7e036.html

○ 『제 4차 산업혁명-주목해야할 3개의 신기술』 미쯔비시종합연구소, 2017년 4월4일
http://www.mri.co.jp/opinion/column/trend/trend_20170331.html

○ 『엔저유도비판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 닛세이기초연구소, 2017년 4월1일
http://www.nli-research.co.jp/files/topics/55388_ext_18_0.pdf?site=nli

○ 『주요 산업의 수급동향과 단기전망』 미즈호은행, 2017년 3월31일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mif_188.pdf

○ 『일본의 무역수지 요인 분석』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3월31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7030054.html

○ 『제 4차 산업혁명-2030년까지 예상되는 기술진보』 미쯔비시종합연구소, 2017년 3월30일
http://www.mri.co.jp/opinion/column/trend/trend_20170329.html

○ 『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일본 참의원, 2017년 3월30일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29pdf/201715702.pdf

○ 『TPP를 토대로 한 새로운 협정의 가능성-재고해야할 일본의 통상전략』 미즈호종합연구소, 2017년 3월29일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70328a.pdf

2. 주요 경제 일정

<4월 실적>

일자	주 요 내 용
3	- 日-EU FTA 협상관회의(~5일, 도쿄) - 놀이공원 '16년도('16.4~'17.3월)입장자수 발표 : 도쿄디즈니리조트 3,000만 4,000명,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1,460만 명
10	- 한중일FTA 협상회의(~13일, 도쿄) -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가 일본의 장기적 인구추계 발표 : '15년 1억 2,709만 명, '53년 9,924만 명, '65년 8,808만 명
11	- '25년 국제박람회 오사카 유치를 각의양해
18	- 미국 부대통령 일본 방문, 아베 총리와 회담 - 미일 경제대화 개최(미국 부대통령과 일본 재무대신이 참석)
19	- 3월 일본방문 외국인수 발표 : 220만 6,000명(전년동월대비 9.8% 증가)
20	- 도쿄 긴자에 대규모 복합상업시설·GINZA SIX 개업 - 3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 6,147억 엔 흑자(2개월 연속 흑자 기록)
21	- 일왕 퇴위에 관한 정부 유식자회의가 최종보고서를 아베 총리에 제출
24	- 일본정부가 오사카 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해 BIE(박람회국제기구 사무국(프랑스 파리))에 신청
26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27일)
27	- 아베 총리가 러시아, 영국을 방문(~30일)

<5월(예정)>

일자	주 요 내 용
4	- 제50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7일, 요코하마)
11	-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3일, 이탈리아)
26	- G7정상회담(~27일, 이탈리아)에서 미일 정상회담
미정	- 제20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요코하마) -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회의)